

Who is Jesus Christ?

(Matthew 1:1)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The first verse of the first chapter in the New Testament book of Matthew tells us that Jesus the Messiah is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To fully grasp who the person of Jesus is, you need to know His background which is illuminat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 genealogical record that follows today's Bible message begins with Abraham. Who is Abraham? The book of Genesis explains that Abraham is an ancestor of the Jews, a man of faith, a friend of God. After the tower of Babel incident, God scattered the human population. There was no hope of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Abraham, God established a way of communication. He made a wonderful covenant with him. When we talk about Matthew 1:1 in relation to Jesus being the son of Abraham, we need to think about Abraham and the blessing He received and believed.

God gave Abraham a great promise which stemmed from God's great promise of salvation mentioned in Genesis 3:15. God told Abraham, "I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y voice" (Gn. 22:18). Abraham is one of God's chosen people who received God's grace because He responded to God with his faith. He is an ancestor of faith. Through him, God's salvation plan unfolded. Hebrews 1:1-2 tells us, "God, after He spoke long ago to the fathers in the prophets in many portions and in many ways, in these last days has spoken to us in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world." In the last days, meaning the entire dispensation extending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advent of Christ, God talks with us through Jesus. Generally speaking, that's the essence of Matthew 1:1's explanation of Jesus Christ.

The book of Matthew was written to Jews and the readership of the Hebrews letter points to a Jewish background. This was done so that the Jewish nation could grasp the truth of Jesus the Messiah. He is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His Jewish descent is a significant element of God's grace. The Jews were eagerly awaiting for the Messiah's arrival. The books of Matthew and Hebrews explain His origins in an historical manner that every Jew could easily understand. God's covenant with Abraham was fulfilled in Jesus Christ.

God's promise to Abraham flowed through history to David. Abraham's son, Isaac, beget Jacob (whose name was changed to Israel). Israel had twelve sons, and from the one named Judah came the Messiah, "The scepter shall not depart from Judah, Nor the ruler's staff from between his feet, Until Shiloh comes, And to him shall be the obedience of the peoples" (Gn. 49:10). David's blessing came from there, "When your days are complete and you lie down with your fathers, I will raise up your descendant after you, who will come forth from you,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He shall build a house for My name,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2 Sam. 7:12&13). David's son has to be Jesus, the son of Abraham. God's covenant with David promises that the right to rule would always remain with David's dynasty. Jesus Christ is the ultimate fulfillment of this promise. Jesus' earthly kingship stems from David's throne.

God promised that from the son of Abraham He would bless the nations, "As for Me, behold, My covenant is with you, And you shall be the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Gn. 17:4). God promised Abraham that he would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Then he believed in the Lord; and He reckon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Gn. 15:6). Through his faith, Abraham became a child of God. When we look at the genealogical record of Matthew 1:1 it ascends from Abraham, whereas the genealogy of Christ in Luke 3:23-38 descends from Joseph to "the son of Enos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v. 38). The son of Adam emphasizes the true humanity of Jesus. Luke is a Gentile. He explains Jesus Christ's background so that people can see that through the Jewish nation salvation came to all the world. Jesus is the Savior of all nations. He is the hope of the whole world. He is the life and the Light to all people. Which ever way Jesus' background is viewed, up or down, it still explains Jesus Christ.

Luke 3:38 tells us that Jesus is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God made Adam specially, in His image (see Gn. 2). God sent His Son to this earth to fulfill His special project. Isaiah 61:1-3 tells us,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afflicted;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And freedom to prisoners; 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To grant those who mourn in Zion, Giving them a garland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The mantle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fainting. So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The planting of the Lord, that He may be glorified."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Jesus i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Him (see Jn. 14:6). In Nazareth, when Jesus read Isaiah 61:1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he told His listeners,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Lk. 4:21). Amen.

Who is Jesus Christ? Jesus is His individual name. Christ is His collective name. It was common for Jews to have two names. Jesus Christ is personally and publicly our Savior. He is the Savior of shepherds and sheep. He is the Savior from sickness. He is the Savior of the wicked, demonic, and sinful. He is the Savior from death. He, alone, is life and resurrection. Who is Jesus Christ to you? I'm challenging you to open your heart and receive the full measure of Matthew 1:1 which tells us that Jesus the Messiah,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son of Abraham. The whole Bible explains God's covenant, His promise, to provide a Savior.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progressively reveal God's great plan of salvation in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a true king, a true Jew, and a true human. He is truly the Son of God. Every human, all poor people, can go to the Father through Jesus Christ.

My dear friends, Jesus Christ is God's way of bringing you to Him. There's no other means of doing so!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Christ. You have to know who He is and what He's about in order to die to yourself and live for Him. The Bible unveils His humanity, Jewish ancestry, and kingship so that you can know Him more fully. Praise God for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May God's blessings and grace be with you. 🙏



김성관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제1장 첫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분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성경 곳곳에 조망되어 있는 예수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경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흠여놓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흠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교제의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을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가 받았고 믿었던 은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위대한 구원의 언약으로부터 연결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였나 하리라” (창 22:18).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그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개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 22:18). 창세기의 초림으로부터 제림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모든 시대를 의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려는 본질입니다.

마태복음의 의도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경을 관점으로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대 민족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열정적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한 기원을 역사적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를 통해서 다윗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은 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한 아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홀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날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 49:10).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된 언약을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네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우리니 내가 그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삼하 7:12-13).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언약은 언제나 다윗의 왕조와 함께 존속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세상적인 왕권은 다윗의 왕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민족이 이루어지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혈육의 아버가 될지라” (창 17:4).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6).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반면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기록된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삭은 에노스요 그 이삭은 셋이요 그 이삭은 야벳이요 그 이삭은 아람이요 그 이삭은 아람이요”라고 기록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누가는 예수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의 참된 인성(人性)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온 세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의 생명과 빛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배경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조망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할 일

누가복음 3장 38절은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자신의 행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창세기 2장 참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특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가 6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담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의 아들을 산하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사온에서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 예수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요 14:6 참조). 예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가 61장 1절을 읽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눅 4:21).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는 그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공적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목자들과 양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천령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약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죄인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그 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완전한 관계를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남다르며 주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혁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며, 참된 유대인이며, 그리고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누구이며, 그가 여러분을 향하여 남다르다고 명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분의 인성을 통해 그것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요 그것을 확신하게 드러냅니다. 메시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선교

차 병 준 (목사, 선교위원회 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마1: 18).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주고 제자삼는 사역도 성령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여자와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행 1: 14) 그 때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앤드류 메레이는 ‘선교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그의 저서에서 아무리 많은 인간적인 노력과 훈련, 세심한 계획을 했을지라도 복되신 왕의 임재보다 선교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만왕의 왕의 권위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런던의 해슬레 선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퍼킨스 목사는 “만일 교회가 기도와 선교라는 두 문제에서 바른 위치에 서게 되면 외국 선교의 결과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 충현의 선교사역에 이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복음에 굳게 선 기도의 불길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모합니다. 인위적인 선교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진정한 선교의 역사를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내가 얻은 자유

라 주 (외신부 방글라데시처)



먼저 한국에 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22년간 살다가 1996년 5월에 한국에 와서 6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후 4년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인지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중현교회의 세 분 선생님(이부웅 선생님, 오지현 선생님, 김봉현 전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세 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이부웅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를 위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저의 성경공부를 위해 매주 오후 6시까지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드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마음 깊숙히 간직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나 하나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저는 죄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생명보다도 선생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저는 커다란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제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삶의 환란이 닥치더라도 기도하며 나아가면 모든게 형통케 됩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자유를 얻게된다.”라고, 이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에 감화되었고, 좋은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 속에 믿음이 싹트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믿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끕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정말 기쁩니다.

성령이 말하는 인간 ①

피조물(被造物)로서의 인간

역사 이래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인간은 누구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일 것이다. 오늘날 이 질문은 비단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기본적인 질문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인간의 삶의 가치는 이 질문이 동기(動機)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를 이미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전적인지만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주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인 성경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을 넘겨야 한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존재의 근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땅위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 그 중에 최고의 질작품인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만드셨다(창 1:27).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인간에 대한 기록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시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에서부터 인간의 삶의 형태는 결정되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주를 정복하여 산다해도 그 인간은 한낱 창조주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달린 인간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어리석은 꾀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만은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다음 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충현선교훈련(CMTC)

CMTC가 시작됩니다. 2002년의 단기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중현의 모든 교우들은 CMTC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주일반 / 주일 오후 6:20~7:50(90분)장 및 1박 수련회)

▷ 1차훈련 : 1월 20일 - 3월 24일 ▷ 2차훈련 : 4월 7일 - 6월 16일 ▷ 3차훈련 : 8월 4일 - 10월 13일

(2) 토요일 / 토요일 오후 5:00~6:30(90분)의 10강좌 및 1박 수련회)

▷ 1차훈련 : 1월 19일 - 3월 23일 ▷ 2차훈련 : 4월 13일 - 6월 22일 ▷ 3차훈련 : 8월 10일 - 10월 26일

(3) 집중훈련 / 방학중 2일

▷ 1차 훈련 : 2월 25일 - 26일(90분)의 10강좌 및 1박 수련회)

▷ 2차 훈련 : 7월 29일 - 30일(90분)의 10강좌 및 1박 수련회)

훈련과정

훈련장소 : 갈릴리움 훈련비 : 10,000원

주	토	1교시 / 주 18:20-19:50		토 17:00-18:30		2교시 / 주 19:50-20:20		토 18:30-19:00	
		과목및내용		강사		과목	강사		
1/20	1/19	개강예배/오리엔테이션		차병준목사/김의철장로					
1/27	1/26	선교의 의미와 역사		차병준목사				노광현장로	
2/3	2/2	타문화의 이해		김동하목사				단기선교사	
2/10	2/9	탐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은희전도사				김의철장로	
2/17	2/16	비교종교학		선교전도사		단기 선교 교의 실 제		단기선교사	
		(힌두교, 회교, 불교, 정교, 카톨릭)							
2/22	2/22	1박선교수련회(금요일회후)		정현민목사					
2/24	3/2	국내외국인 사역과 선교		송길환목사					전홍렬장로
3/3	3/9	단기선교의 실제 1/		선교전도사				단기선교사	
		정담,노광전도,심방,민박							
3/10	3/16	단기선교의 실제 2/		선교전도사				임무천장로	
		어린이사역, 캠퍼스 전도							
3/17	3/23	전도훈련		여국근목사				김영수장로	
3/24	3/30	유급치치/폐회예배(수료식)		조인재장로/김의철장로				차병준목사	

2002 교회 주요행사표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1	화	거usalem경학교/거usalem수련회 동기전도대 파송	교육위	교구위	1~2월 1~2월
6	주	경로성령 교회주변 전도	교구위	매주 수, 토	1~2월
9	수	신년예배(오전 9, 11시)	예배위		
15	화	성찬식(1차)	예배위		
19	수	장기 당회	당회 서기		
16-19	수-토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기획위	교, 당, 안, 권	갈릴리움
27	주	제7회 전국 찬양대원 찬양 강습회 선교주일	찬양위	교구위, 2교위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6	수	거usalem경학교/거usalem수련회	교육위		1~2월
13	수	동기전도대 파송	전도위	교구위	1~2월
17	주	찬양강화회	교구위		1~2월
20-22	수-금	경로성령 교회주변 전도	교구위	매주 수, 토	
24	주	장기 당회	당회 서기		
28-01	목-금	사순절 절기 시작 (3/30까지)	예배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총원장학회		갈릴리움
		청지기훈련(1차)	교육훈련연구원		주제/성안
		학습세례식(1차)	예배위	교구위	
		교역자, 장로 수련회	교역자, 당회서기	기획위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3	주	대심방	교구위		3~6월
6	수	남성구역장 훈련	교육훈련연구원	교구위	3~4월
10	주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12	화	성찬식(2차)	예배위		
25-30	월-토	장기 당회	당회 서기		
29	금	제55기 교사양성부 개강	제직위		
31	주	주간성경공부 1학기 개강	성경연구원	15주(6/16 종강)	
		제26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찬양위	15주(6/18 종강)	
		총원전도대 훈련(전반기)	성경연구원	전도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배위	전 교인금(금)	
		성 금요일 특별 집회	예배위	성찬식, 주제발표	
		부활주일 예배	예배위		
		부활절 특별 찬양예배	찬양위	아래찬양대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7	주	교구영성훈련	교구위		4~5월
10	수	대심방	교구위		3~6월
18	목	교구영성훈련	교육훈련연구원	교구위	3~4월
21	주	피막자 교육	교육훈련연구원		26주
28	주	2002 년기전교단 파송(1차)	선교위	기획위	매주 수, 토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공동의회	당회 서기	직분자 신출안	
		장기 당회	당회 서기	직분자 후보 심의	
		교사단기수련회	교육훈련연구원	1, 2, 3교구위	
		공동의회	당회 서기		
		학습세례식(2차)	예배위	교구위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5	주	교구영성훈련	교구위		4~5월
8	수	대심방	교구위		3~6월
12	주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14	화	성찬식(3차)	예배위		
17	금	이런이 주일	예배위	교육위	
		장기 당회	당회 서기		
		전 교인 연합 가족 예배	예배위, 교육위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기획위	교, 당, 안, 권	
		오순절 특별 금요집회	예배위		주제발표
		성령강림주일(오순절)	예배위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5	수	대심방	교구위		3~6월
9	주	2002 년기전교단 파송(2차)	선교위	기획위	
12-14	수-금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23	주	장기 당회	당회 서기		
		장기 제직회	당회 서기		
		청지기훈련(2차)	교육훈련연구원	교구위	
		학습세례식(3차)	예배위	교구위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7	주	거usalem경학교/거usalem수련회 하기전도대 파송	교육위	교구위, 2교위	7~8월 7~8월
10	수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성찬식(4차)	예배위		
		매주감사절 예배	예배위		
		매주감사절 특별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임마누엘찬양대
		장기 당회	당회 서기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7	수	거usalem경학교/거usalem수련회	교육위		7~8월
7-10	수-토	하기전도대 파송	전도위	교구위, 2교위	7~8월
25	주	2002 년기전교단 파송(3차)	선교위	기획위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장기 당회	당회 서기		
		제7회 전국 찬양대지도체자 강습회	찬양위		반주자
		학습세례식(4차)	예배위	교구위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1	주	절기구제 대심방	봉사위		
4	수	교구영성훈련	교구위		9~11월
6	금	남성구역장 훈련	교육훈련연구원	교구위	
6-7	금-토	남성구역장 훈련	교육훈련연구원		9~10월
8	주	후반기 장학금 선발 및 지급	총원장학회		
10	화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11	수	성찬식(5차)	예배위		
15	주	장기 당회	당회 서기		
24	화	특별 금요집회	예배위	기획위	주제발표
		교역자, 장로 수련회	교역자, 당회 서기	기획위	
		교회성령기쁨 감사예배	예배위		전 교인연합예배
		교회성령기쁨 특별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가브리엘찬양대
		주간성경공부 2학기 개강	성경연구원	14주(12/3 종강)	
		제27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14주(12/3 종강)	
		전도대 훈련(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전도위	
		장기 제직회	제직위	당회서기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	총원장학회	1, 2, 3 교구위	갈릴리움
		제56기 교사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14주(12/8 종강)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기도회	기획위원회	교, 당, 안, 권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9	수	대심방	선교위	교구위	9~11월
16-18	수-금	교구영성훈련	교구위	교구위	9~10월
23	수	남성구역장 훈련	교육훈련연구원	교구위	9~10월
27	주	교역자 수련회	교역자위		
		교신자 초청 전도집회	교구위	전도위	10~11월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장기 당회	당회 서기		
		청지기훈련(3차)	교육훈련연구원	교구위	
		장로/집사/권사 임직예배	당회	예배위	
		학습세례식(5차)	예배위	교구위	
		홍교개회주일	예배위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3	주	신년도 예산안 심의	기획위	각 기관	
6	수	신년도 직분자 심의	인사위	각 기관	
17	주	대심방	교구위		
		교신자 초청 전도집회	교구위	전도위	10~11월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성찬식(6차)	예배위		
		장기 당회	당회 서기		
		추수감사주일 예배	예배위		
		전 교인연합 가족예배	예배위	1, 2, 3 교구위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함원부원찬양대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4	수	총회	각 기관		
11	수	절기구제(성탄)	봉사위		
15	주	교회주변 전도	전도위	매주 수, 토	
20	금	장기 당회	당회 서기		
22	주	임직 당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직분자 임명	인사위	4부 예배	
		특별 제직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메시아 연합 찬양	교구위		
		교구 총회	1, 2, 3 교구위	찬양예배 후	
		학습세례식(6차)	예배위	교구위	
		성탄절 찬양의 밤	1, 3 교구위		
		신년축하 예배	예배위	찬양위	오전 9, 11시
		특별 금요집회	예배위	기획위	주제발표
		은혜자/근속자 포상	인사위, 행정위		
		공동의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달고 오묘한 그말씀 / 1월 4일 금요일

구약에 있는 우리 신앙의 뿌리

서론 : 구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구약을 깊이 알려하지 않고 그저 이야기의 흐름이나 좋아하는 구절 정도만 알고 지나간다. 구약을 율법의 책, 낡은 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약을 유대인의 종교, 이미 지나간 전리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구약은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지나가는 정도의 책으로 여기고 감동 없이 읽는다.

그러나 구약은 구약시대에도 그랬듯 지금도 여전히 전리의 책이다. 구약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언하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약이 잘 증거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5,16절에서 예수님은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셨으며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다. 스테반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구약 전체를 설명했고(행 7), 바울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의 역사를 먼저 가르쳤다(행 13:16-23). 누가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 했으며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다(눅 24:27).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통해야만 신약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신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다. 신약 시대 이후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처음부터 계셨으며 끝까지 계실 분이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누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는가? 그 누가 구약에 믿음이, 혹은 구약이 없다 하는가?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구원과 믿음을 알 수 없다. 그것은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즉 구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약에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을 찾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이제 구약을 기쁨으로 읽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장균 ♥ 이은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삼남 일녀를 둔 부부입니다. 같은 상가에서 늘 만나는 충원교회 전사원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 등록하였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저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가족 부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며 목사님께 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지만 앞으로 계속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닐 것입니다.

'임 경희' 자매를 소개합니다

결혼 전에는 은행에 다녔고 지금은 남원과의 사이에 11개월 된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출석하는 데는 교회에서 쉽게 충원교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와 내부의 융합함에 놀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직 깊은 신앙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사랑과 관개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생기도록 도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에서부터 어렵다고 생각했던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주셔서 제때이고, 마음으로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직 새가족부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꼭 등록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숙 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호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실 것임이라"(시사아 64:8)

11교구 유정림 성도(남61세)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중이며 의식은 회복했습니다. 빨리 캐슈되어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5교구 권치구 성도(남55세) 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지난 해 제 등록한 재산 지입니다. 믿음으로 낙망치 말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태 집사(남61세) 간암 말기로 복수가 차오르고 심한 헛구역으로 고통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7교구 김복미 성도(여41세) 전신에 암이 퍼져 통증이 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열과실성을 믿고 기다립니다.

[한국 교회사]

한미조약과 건미사절단

구미 여러나라 중에서 한국이 문화를 개방하여 가장 먼저 국교를 맺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한국과 접촉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으나 청의 알선과 권유를 받아 한국은 미국에 수교통상의 문화를 처음 열게 되었다. 이에 1882년 5월 22일 미국과의 사이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수호통상조약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조문이 없다. 다만 이 조약으로 '학자'를 이 나라에 파송하여 '언어와 문학과 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은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제국에 대하여 더욱 풍부한 지식을 얻고 동시에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특별전권사절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건미사절단이다.

1883년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건미사절단 일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후 한국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남긴 사람을 만났다. 그는 가우처 박사였다. 그는 해외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미감리회의 목사였다. 사절단 일행을 만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는 한국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기차 안에서 사흘 동안 일행과 교제하면서 그는 '은둔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기도와 한국담론이 선교본부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선교사업을 일으키도록 이끌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역사 위에 절묘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의 종 가우처로 미국의 저대 독립당단의 철도 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앞에 나타난 빌립'이 되게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882년 한미수호조약의 체결로 비로소 기독교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건미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감리회의 가우처와 만나게 되어 한국선교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데 있어서 국제간의 수교 통상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들 믿는 진종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미 예배 때에 애정되는 이 진종씨는 1885년에 칼 구스타프 보버그(Carl Gustaf Boberg, 1859~1940) 목사가 지친 "O Store Gud"의 스웨덴 찬송가였으나 스웨덴에서는 그치지 않아 불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웃나라 성도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널리 퍼졌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선교사였던 영국 태생의 스튜어트 하인(Stuart H. Hine)목사의 번역은 1~3절을 영어로 개작하고 4절을 첨가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필자시사의 근본 의의를 잘 살리면서도 역사의 영적 체험이 참가된 훌륭한 의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을 보고 찬탄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주에 가득함을 알게 되며(1절),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후렴). 숲의 새와 사슴들의 이름도 소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솜씨가 창조함을 알게 해준다(2절). 또한 용왕자를 아끼지 않고요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니 깨달으면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3절). 창조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방황으로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커져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이다(4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 찬송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곧 창조주와 구주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주께서 아무리 위대하시나 해도,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가 하신지 103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지름도 있대(후렴 120~23).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며 그보다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로마 1:21)였다고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면 우주에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하여 할 것임이요, 자신에게 미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겸손히 찬양할 것이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며(13)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느니라(16)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찬양가원)

필사를 마치면서

류성진 (유년부)

처음에 필사를 하기 전에는 잘 쓸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하지만 필사를 하고 나니 하나님 말씀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무엇에 기적을 주어 사람들을 편하게 하셨지요, 그것이 무슨 기적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필사성경은 유년부 어린이들이 1년 동안에 걸쳐 요한복음을 하루 한 구절씩 필사 노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김의로 (유년부)

나는 예배를 드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노래가 좋으니깐 좋다. 찬송가 노래를 부르면 화가 났던게 풀린다. 그리고 찬양대가 좋다. 찬양대는 찬송을 연주해서 부르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서 좋다. 나도 찬양대를 하고 싶었다(작년에는 찬양대 오디션에서 떨어졌음). 그래서 12월 동안 찬양했다.

실업이 다 되었다. (찬양대를 뺀 날) 나는 걱정이 되어 새벽에도 찬송을 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갔다. (찬양대 시험을 볼 때) 나는 조금 떨

렸다. 왜냐하면 찬양대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방금하고 가자고 중얼거렸다. 내가 합격했었다. 나는 좋았다. 나는 찬양대를 할때는 기쁘고 있고 싶고(조용히 예배 드리고있다는 뜻) 찬양을 잘 하고 싶다. 내가 찬양대를 하고 싶은 건 나도 모르게 찬양을 자꾸자꾸 하고 싶어 때문이다.

*이해의 보충: 처음에는 리가 찬양대를 하라는 목적이 찬양대에서 주는 간식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간식 때문이 아니라 정말 찬양대를 하고 싶었던 것임을 알았을 때 마음 속으로 감사를 드렸다. 찬양대를 하게 된 이후로 부리나케 연습하러 나가는 아들을 보며 그 마음에 찬송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사의 생

미가(Mic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미가'에서 중요한 구절을 알아하고 한다면 다음의 구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미가'를 통해서 알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게 주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義)에서 떨어져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전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너는 네 기베라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잡아 대머리 같게 할지이다 네 머리가 크거 무어지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이다 이는 그들이 사모라한 자를 떠났음이라"(1:16).

이방인을 향한 구원. "말일에 이르러는 예호와 의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서 적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거며 이브가지를 오아 우리가 예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아람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음벌이 사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리라"(4:1-2).

영원한 왕의 탄생. "베들레헬 에브라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5:2)

영원한 왕의 요행.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빈손을 끼니만 들고 와서 너의 앞에 나아갈까 예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민의 갈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네 허물을 위하여 네 번갯불을, 네 영혼의 죄를 인하여 네 이름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예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라 하는 것이 옳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마나"(6:6-8).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예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며 그 기 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만민을 기뻐하시므로 노를 함성 함성 하니하시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행하신 대로 아람에게 성실을 배부시며 아브라함에게 인권을 더하시리이다"(7:18-20).

자, 이 정도로 미가에 대한 개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였으면, 우선 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두 합니다. 미가는 B.C 750년에서 686년까지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즉 유다의 '요담', '요시', '호스야'가 통치하는 시대를 살았습니(1:1, 렬 26:18). 그러니까 그는 이시야,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지과 만민 영적 통솔자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적인 길방에 걸려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참조 대제사장 분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15장-20장과 역대하 27장-32장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사마리아의 멸망(721-722)과 유다의 파멸 수 없는 황폐화(589-586)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의 선조는 히스야의 종교개혁 이전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우상숭배, 불의, 거역, 허탄한 예식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에 침탄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시온의 영광, 영원한 다윗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동화 목사 (출판권 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고승균 (안수집사, 소년부 부장)

지나간 이라기지만 IMF때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97년도 신문, 방송에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자주 나왔다. 그때 나는 IMF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었다. 다닌던 직장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니 7년째 되는 97년 여름, 나는 처음으로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런 의욕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한 일일에 대한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IMF와 함께 나의 사업은 하는 일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결국 내가 감당기 어려운 많은 빚도 지게 되었다.

약3년간 겪은 고생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셨다. 감사한 것은 어려울 때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진 나에게 세상적인 육복 대신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의 믿음도, 나의 중심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셨다.

나는 이제 나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기대한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나를 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작년에 소년부 부장을 맡게 되었다. 하나님은 세상부귀영화보다 먼저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저의 결심 약화되어 저를 붙들어주시고 2002년에라도 허락하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catechism

17.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자유의 의미와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복을 내려 주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이며, 현재의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원한의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과 무덤의 슬픔과 영원한 파멸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를 내어줌에 어떤 것이 같은 사랑과 자비에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에서 율법 아래 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도 아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특권이 훨씬 더 증가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복종했던 의식적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더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양심의 주님이시니, 사람의 양심은 신약과 예법의 본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걸 경멸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그런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따르는 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유의 목적은 원수들과 손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두려움 없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파로 값 주고 사신 자유의 목적은 서로 도와서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 합법적인 권세나 그와 합법적인 성령(국가적인 것이거나 교회적인 것이거나 간에)을 반대하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성령이나 운동은 자연 계이에도 위배되고, 이미 알려진 거룩하고의 선양, 예배, 영화의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도 위배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그릇된 성령이나 영혼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문제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규범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김병태 전도사-청년부 부지도)

